



협의회

소식

88년도 일반건강진단 수수료 인상 추진

○ 협의회는 현행 근로자 건강진단 수수료가 의료보험수가중 의원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가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건강진단과 관련된 각종 검사료(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가 8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어 현재의 검진수가로서는 도저히 검진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최근들어 정부의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 강화로 각종 기장비 및 시설 등의 간접비 부담과 출장검진에 따른 직접비용 가중은 검진수가에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88년도 검진수가가 대폭 인상되지 않는한 검진의 정도 관리 및 질서유지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협의회에서는 지난 7~8월에 전국 일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수가의 절대인상을 주장하면서 검진수가의 적정보장이 없는한 부실검진요인이 배제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대한의학 및 병원협회에 협조요청하는 한편 협의회 자체적으로 검진수가 인상조정안을 검토하여 노동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 완화건의

○ 협의회는 현행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중 인력 및 시설기준 일부가 검진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하여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였다.

○ 건의내용

현 행	개 정 건 의
가. 인력기준 (2) 간호원 1인이상	(2)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 1인이상
나. 시설기준 (2) 방음실(청력검사용)	(2) “삭 제”

○ 개정사유

일반건강진단은 각종 검사항목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간호원의 업무 역시 감독에 의한 보조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원으로서도 검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2차 정밀검사(청력검사)를 위해 방음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건강진단 항목별 검사방법 및 건강진단개인표 기재요령에 의하면 2차 정밀검사가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일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업무지도 실시

○ 협의회는 일반검진 회원기관(1,001개)에 대한 검진업무지도를 3년에 걸쳐 실시한다는 기본계획하에 1차년도인 87년에 320개기관을 지부별로 선정,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키로 하고 현재 지부자체계획에 의거 실시중이다.

○ 업무지도 목적은 인력 및 시설, 기장비 기준, 검진수행상황, 결과표 작성상태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기본적 능력과약과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자율적, 자제적인 취지에 추진키로 하였으며 지부 운영위원 또는 자율정화위원 1명과 협의회 실무요원 1명이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업무 전반에 걸친 기초자료 조사와 병행 실시키로 하였다.

1차 대상회원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행임원회 개최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회 실행임원회가 9.24 조찬회로 소집되어 그간 협의회 가입 및 검진결과표 제출실태에 관한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회원기관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키로 하였다.

○ 또한 임원회는 협의회가 회원기관의 어려움을 앞장서 도와줄 수 있는 기능과 업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회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협의하였다.

○ 이에 따라 검진수가의 인상조정, 결과표 작성지도, 지정기준 완화 등 실질적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수료 텅핑 및 부실검진 등 문제는 자율적으로 강력히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온작업 및 고온성질환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K IN A HOT ENVIRONMENT

AND HEAT-RELATED DISORDERS

일 시 : 1988.1.27 ~ 31

장 소 : SUDAN, KHARTOUM, FRIENDSHIP HALL